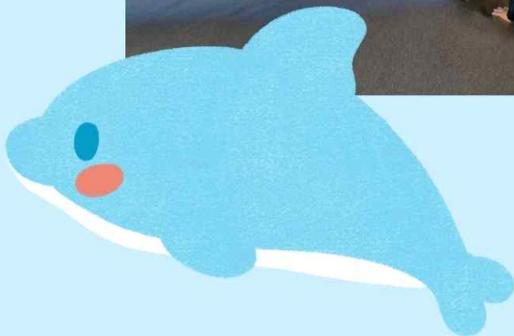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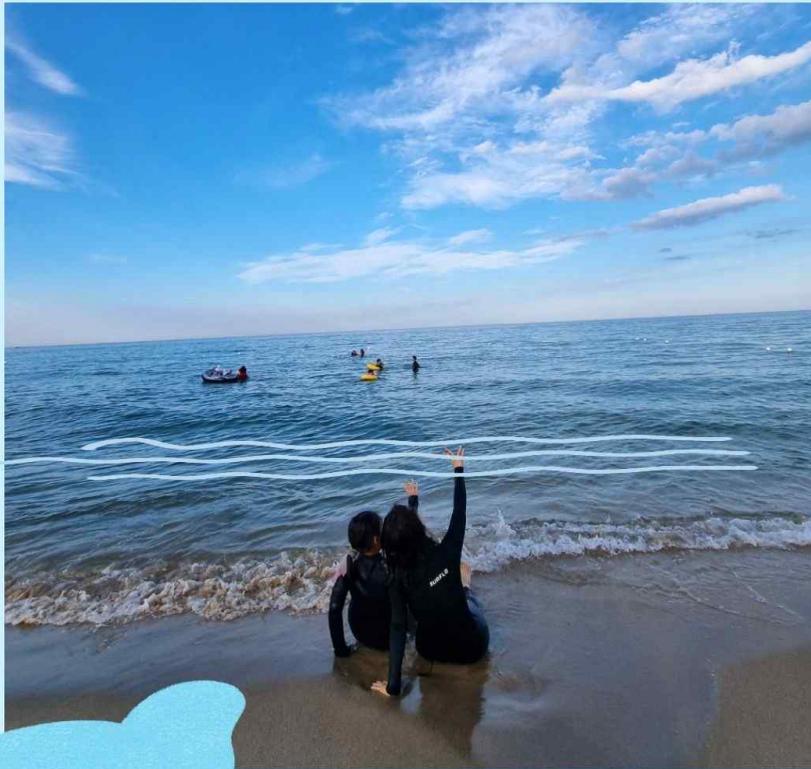




뚜벅이들의 여행기



유제이퍼

이성심&챗GPT

TRAVEL TALES OF WANDERERS



Table of Contents

- 1 여행계획
- 2 친정집이 하나 더
- 3 아빠 없이 떠난 정동진 여행 1일차
- 4 그랜파더 에잇맨 클락
(Grandfather eight man clock)
- 5 이번에는 아빠와 함께한 가족 여행
- 6 아빠 없이 여행가기 두번째 도전
- 7 뚜벅이들의 여행기 1탄
- 8 뚜벅이들의 여행기 2탄
- 9 뚜벅이들의 여행기 3탄

아이들이 이번주 부터 학원 방학에 들어갔다.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다.

마지막 초등 생활을 하고 있는 6학년 큰 딸 아이가 바다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 아이들 학원 방학일 때 며칠만이라도 여행을 다녀왔음 하는데, 남편과 일정이 안 맞는다. 늦은 봄부터 시작해 가을 끝무렵까지 남편은 트라이애슬론 관련 일로 주말과 연가를 사용한다. 그 동안 잘 참아왔던 마음이 욱하고 올라온다. 가족을 위해 연가를 사용해 본적 있냐고 뽀족한 말을 내뱉었으나 아마 몇 번은 있을꺼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덮어버리는 남편. 나 또한 남편에게 일정 취소하고 같이 여행가자고 말을 못한다.

대신 나의 선택은 아이들을 데리고 셋이 여행을 가는것!!

"내 몸이 바다를 원해" 하며 강릉 가고 싶다며 날마다 야놀자 숙박 어플에 들어가 펜션을 검색하는 6학년 큰 딸 아이의 바람을 생각하며 뚜벅이들이 갈 수 있는 바다가 어디 일까? 고민하다가 정동진이 떠올랐다.

정동진은 기차 안에서 눈 앞 바다가 보일만큼 해변과 가깝다.

숙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웬만한 펜션, 호텔은 예약이 다 차버렸고 게스트하우스 한 곳이 8월 3일 날짜가 비어 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도 신혼 부부로 친절해보이고 우리 셋만 쓸수 있는 독립방이 있어 바로 예약을 하고 기차표를 예매 했다.

정동진은 역 근처에 숙소, 레일바이크, 해변도 있어서 뚜벅이 여행객에게는 반가운 여행지다. 남편 없이 당일 치기로 애들과 돌아다니긴 했으나 1박 2일의 장거리 여행은 처음이다. 설렘반 걱정반인 지금이지만 다녀 온 후에는 세 모녀가 많이 성장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재미있게 놀자 오자 파이팅~~!!^^



어제오늘 정동진 여행을 다녀왔다.
지금은 집에와서 글을쓰고 있지만
정동진에서의 추억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아이들을 데리고 정동진까지 가려면
먼길을 떠나야하는데
아이들이 지치지 않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출발했다.
지하철을 탔을때 편안하게 갔다.
하지만 1호선으로 바꿔탔을때
자리가 없어 아이가 서서타야했다.
어찌다 한자리가 났을때 둘째를
태우고 조금떨어진곳에 첫째와
앉았다 둘째와 떨어져있어서
둘째가 걱정이 되었다.
옆친데 옆친격으로 물건파는 사람이 나타났다.
요술안경이라고
사라고하는사람이 나타났다.
우리쪽으로 올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우리쪽으로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가 있는쪽으로 갔다.
다행이고 물건파는 사람은 둘째에게 말을걸지
않았지만 계속 사라고 하더니 사는 사람이 없자
옆칸으로 넘어갔다.
이제 KTX를 타야하는데 길치라서
길을 못찾아서 잠깐 헤맸는데
셋중에서 유일하게 길치가 아닌
첫째의 도움을 받아서 갔다.
KTX에서 한창 가고있는데 정동진 역에 가까워질수록 넓고 황홀한 바다에 눈을
떨수가 없었다.
KTX에서 내린뒤 사진을 찍고난뒤
허겁지겁 밥부터먹었다.
해물탕을 먹었고 맛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지만
한끼 식사로는 나쁘지 않았다.
숙소로 가는중 첫째가 알려준 네이버지도 기능으로 숙소를 찾아갔다.

안녕,정동진 이라는 숙소로 갔다 입실 시간보다
빨리 왔는데 사장님이 친절하시게 빨리 와도
된다고 공용공간으로 안내해주셨다.
앉아서 사장님에 설명을 들으려는데
사장님이 음료수를 준비해주셔서 맛있게 마셨다.
사장님이 맛집,여행지를 추천해 주셨는데 서핑하면 좋을것 같아서 서핑을 했
다.

서핑은 생전처음해보는데 서핑 슈트가 따로 있었다.
강사님께서 슈트입기가 어렵다고 하셨다.

'그렇게 어렵겠어?'하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어려웠다.

슈트를 입고 서핑하기전에 설명을
들었다 준비,푸쉬,업이 있다.
준비하면 준비 자세를 취하고
푸쉬는 물개자세를 하면된다.

마지막은 업이다 업 하면
빗자루 쓸듯이 일어나는데
중간에 멈춘듯이 일어나면 된다.

강사님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나까지 열심히 서핑하게 되었다.
서핑한뒤 자유시간에 서핑을
하려는데 강사님이 도와주신것
같이 잘되지는 않았다.

둘째가 보드위로 잘 못올라타자
멀리계시던 서핑 강사님이 도와주셨다.

석식은 토마토 스파게티였다.

첫째가 스파게티를 좋아해서
이른 아침부터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석식을 시킬수있는 시간이
늦어서 큰애가 토마토 스파게티를
못먹는줄알았는데

안녕,정동진 사장님이 늦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어주셨다.

공용공간에서 토마토 스파게티를먹던중에
옆호실에서 치킨을 시킨 분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치킨을
나눠주셨고 다른 분은 감자전을
주셨다.

석식 먹고난뒤 아이들이 바다가서
밤산책 하자고 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가려는데 사장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가서 폭죽과 비눗방울을 해
주셨다.

사장님께 너무 감사했다.

씻고 난뒤 에어컨을 키고서
아이와 같이 잠에들었다 상쾌하고
아이와 함께해서 행복했다.

아빠없이 아이들과 셋이 처음으로
정동진에와서 긴장했는데
안녕.정동진 사장님과 서핑강사님이
아빠의 역할을 해주어 좋은 여행이 되었다.
정동진에서의 휴가 1일차 끝



안녕 정동진 게스트하우스

사진 속의 시계는 고든 브라ட்(미국, 발명가, 디자이너, 동작조합아티스트)의 그랜드파더 에잇맨 클락(grandfather eight man clock) 작품입니다

8개의 동작 인형을 활용하여 '인간과 시간'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표현하였고 전세계적으로 캐나다 토론토 국제 공항, 미국 시애틀 과학 박물관 유사모델이 전시되어 전세계에 2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시계 속 인형들이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울해 보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계를 자세히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8개의 동작 인형들이 갇혀 있는 공간에 똑같은 일만 계속하고 자유가 없이 사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보여 우울해 보였습니다. 활기차게 보인다고 하는 의견은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관점에 따라 '활기찬 시계', '우울한 시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일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 시선의 차이인데 모든 것에서 정답만 찾으려는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되돌아 보게 됩니다.

물론 시험 공부할 때는 객관식 5개의 문항 중 더더더 정답을 찾는게 중요하지 만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할 때는 좀 더 유연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시계 아래 부분에 긴 스프링이 보이고 사람이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맨 밑에서 부터 가장 꼭대기 정점에 올라가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1분을 의미합니다. 올라가는 시간은 59초가 걸리는데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1초이니 추락은 한순간이네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주변도 돌아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유롭게 사는 인생의 맛을 시계속 인형들에게 알려 주고 싶네요.

정동진 시간의 박물관 고든 브라트의 마지막 작품 특별전은 1박 2일 여행이 끝나고도 깊은 여운을 줍니다.



GRANDFATHER EIGHT MAN CLOCK



GRANDFATHER EIGHT
MAN CLOCK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두 딸과 함께 KTX를 타고 정동진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8월 한여름 휴가철. 날은 덥고 뚜벅이 여행객들이라 짐은 무거웠다. 가까스로 도착한 숙소 '안녕, 정동진'은

개인이 머무는 방은 작고 화장실도 협소했지만 공용공간이라 불리우는 주방과 식당 거실은 마음껏 이용이 가능해 좁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이 곳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에 군데군데 아기자기한 예쁜 소품들로 꾸며져 있어 깔끔한 인테리어였다. 퇴실 후에도 '안녕, 정동진'에 짐을 두고두손 가볍게 여행을 했고 더울 때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이 곳에와서 쉬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녕 정동진'의 꽃은 사장님이였다.

신혼부부이신 남자 사장님인데 친절 마인드로 푹푹 멍친 30대 젊은이였다. 뚜벅이 여행객인 우리에게 정동진을 소개해주고 반백년 조금 못 살은 나에게 서핑을 추천해주었다.

서핑 장소인 금진해변 갈 때와 숙소에 올때 픽업도 사장님이 직접 해주었다.

친절한 젊은 사장님이 운전하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어 풍요로운 여행이 되었다.

서핑 체험, 하슬라아트월드, 바다 보며 레일바이크 타기, 시간 박물관 탐방 등으로 1박 2일 알찬 정동진 여행을 하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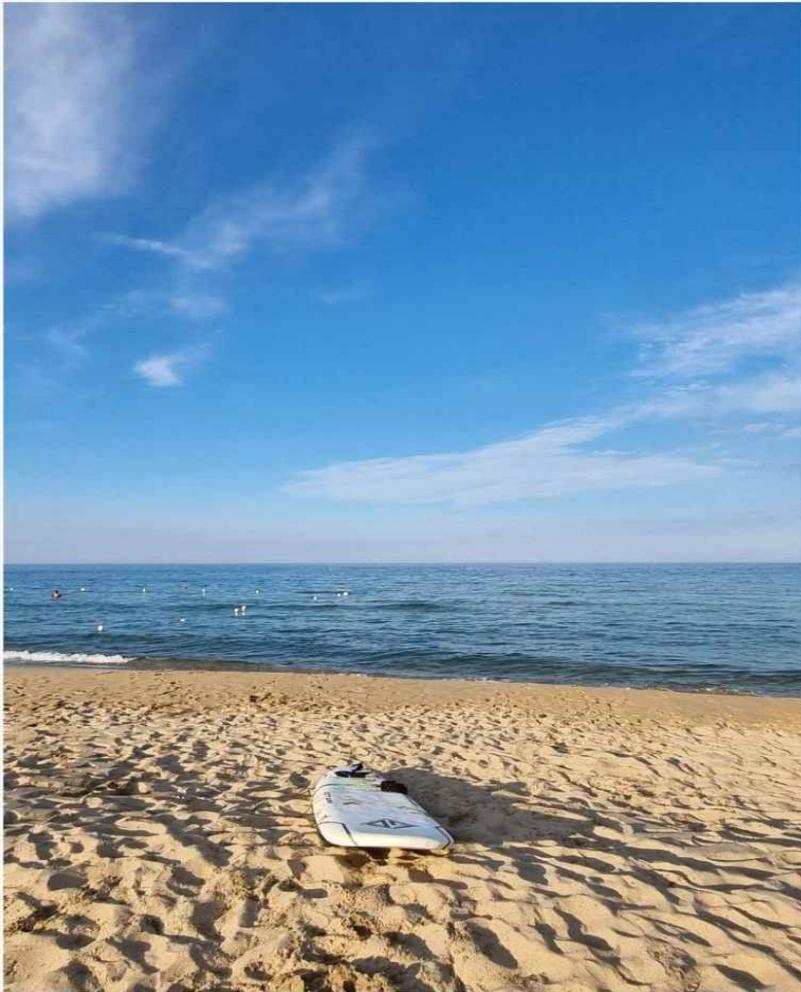
정동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해주는 정동진 소개는 듣는 사람도 마치 이곳에서 자란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 만큼 현지인의 시선으로 정동진을 보고 느끼게 했다.

정동초등학교에서 했던 독립영화제, 독립 서점, 부채길, 강릉 공방 투어 등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정동진에 많이 남겨두고 왔다. 정동진을 생각하면 마치 친정집 처럼 편안하고 정겹다. 왜일까?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안녕, 정동진' 사장님이 뚜벅이들에게 보내준 친절이 다시 이곳을 가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인 듯 하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친정집 같은 사람이고 싶다.

SUMMER VIBE

시원시원하게
여름나기



강원도 금진 해변

가족 넷이 다 뭉친 찐 가족여행이 시작되었다.

여수를 여행지로 정한 것 외에 숙소 예약도 경유할 곳도 계획하지 않았다.

이런 무계획으로 여행을 시작한 것은 처음이지만, 얼마전 아이 둘을 데리고 뚜벅이로 정동진을 다녀온 후 용기가 백배 충전되어 숙소가 없으면 텐트에서나 차에서 잠을 자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여수 가는 길이 머니 중간에 이순신 장군을 모신 아산 현충사를 둘러보자는 남편의 제안으로 현충사를 방문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4D 영상물도 보고 기념관을 다녀오니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주신 이순신 장군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순신 장군은 문과 시험을 준비했지만 낙방하고 장인의 권고로 무과 시험을 준비한 끝에 32세의 늦은 나이로 급제하게 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든 인정 받는 이순신 장군이 남들보다 늦게 벼슬길에 오르고 첫발령지도 변방 함경도 였다는 사실을 보며 빠른 것이 곧 성공이다라는 나의 생각의 공식이 깨졌다.

끊임 없이 자기 길을 찾고 자신의 강점을 사용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난세가 영웅을 만든 시대의 흐름도 탔지만 왜군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안목과 준비로 나라를 구한 그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여수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지역관광이 구축되어 있었다. 여수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에 수군절도사로 임명 받아 내려온 곳이었다. 의도치 않았던 여행에서 장소를 바꾼는 곳마다 이순신 장군을 만나게 되어 의미 깊었다. 때마침 여수 문화재 야행 행사도 진행되고 있어 밤까지 아주 알찬 여수 여행을 하고 있다.

남편도 퍼즐 끼워 맞추듯 이순신 장군 발자취를 따르는 여행이 되었다고 신기하다며 장거리 운전이 피곤해 잠이 들었다. 숙소는 황금연휴기간이라 예상대로 구하기 어려지만 다행히 여수 시내에 게스트하우스를 찾아 우리끼리 4인룸에 묵고 있다. 아빠의 운전으로 아이들은 이동할 때마다 편하게 잠을 자고 두손 두발 가볍게 여행을 할 수 있어 좋아했다.

남편이 있으니 나도 한결 수월한 여행 일정을 보내 감사하다.

역시 가족은 하나로 뭉쳐야한다!!



www.reallygreatsite.ru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다.

명절에는 늘 대전에 있는 시댁을 가고 인천에 있는 친정을 가는 일정이었는데 남편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트라이애슬론 경기로 중국에 간다. 2022년 9월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열리게 되었다.

남편 없는 추석 명절 초등학교 두 딸을 데리고 버스 타고 대전 시댁을 내려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큰 며느리인 내가 안 내려가면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동서의 일이 늘어나게 되어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이런 저런 고민 후 남편과 상의 끝에 추석 전에 시댁에 내려가서 시부모님 뵙고 오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이번 추석 기간에는 시댁을 가지 않을 예정이다. 타인의 욕망이 아닌 주체적 욕망을 따르는 나의 모습이 낯설지만 기분 좋다. 그간 읽었던 책들이 나의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를 주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은 6일로 늘어나 아이들과의 뚜벅이 여행을 계획했다.

올 여름철 정동진에서의 추억을 다시 소환하여 2박 3일 여행 중 첫날은 정동진, 둘째날은 강릉으로 일정을 잡았다.

3일차 날에는 아침 기차표만 있어 짧은 여행 후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야하지만 남편 없이 여행가기 두 번째 도전이다!! 이번에도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기로 했다. 지난 여름 휴가철 처음으로 게스트하우스 안녕 정동진을 이용해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뒤로 게스트하우스에 완전 꽂혔다.

안녕 정동진에서의 1박은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꿈을 꾸게 했다.

난 왜 게스트하우스가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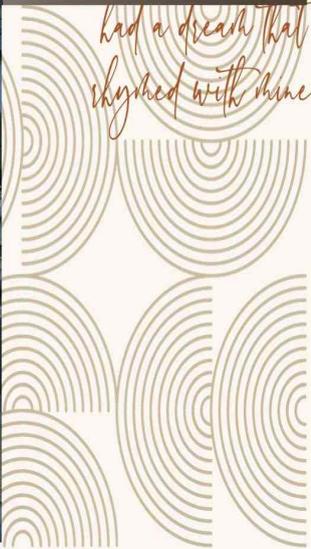
1. 뚜벅이 여행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쉽다.
2. 여행지에서 놀다보면 숙소는 잠만 자게 되는데 펜션에 비해 가성비가 아주 좋다.
3. 간단한 조식이 제공된다.
4.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관광지가 비교적 밀집되어 있다.
5. 게스트하우스에서 공용공간에서 마주 치는 사람들과 여행을 공유해 진정한 여행자가 된 기분이 든다.
6. 친절한 주인장을 만나면 지역 특색이 있는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관광지까지 픽업도 해준다.

퇴직 후 바다가 있는 강원도나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1층에 카페를 차리며 여유있게 살고 싶다. 이번에 여행가서 안녕 정동진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도 많이 묻고 배우고 와야겠다. 이번 여행은 큰 딸의 바람을 담아 이곳 저

곳 이동하기 보다는 바닷가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쉬고 올 예정이다. 둘째 딸은 호캉스를 가고 싶어하는데 그건 담으로 미루기로 했다. 설렘과 걱정이 앞서지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the
y
low
nce
red
he



had a dream that
rhymed with mine

알람이 울린다.

휴일 아침이지만 여행 가는 첫날이라 맘이 바쁘다.

여행 첫날 아침은 문을 열고 집을 떠나는데 여행의 시작이 아니라, 여행 가기 전 아침 먹은 설거지를 해놓고 간단한 집안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여행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단정하고 말끔한 집에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 가방을 맨 두 아이 손에 쓰레기 분리수거 박스를 건네준다. 여행 갈 마음에 부푼 아이들 입이 나온다. 하지만 어찌랴 2박 3일 여행 끝나고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날파리들을 만나지 않으려면 쓰레기는 버리고 가야한다.

정동진 강릉 2박 3일 여행 시작~~~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기차를 타고 정동진으로 출발!!

지난 번에는 몰라서 청량리에서 타는 기차표를 예매 했는데, 알고 보니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정동진 KTX가 있었다.

이번엔 그래서 뚜벅이들이 좀 수월하게 KTX 기차역까지 이동했다.

정동진 여행 두번째라 그런지 엄마와 초등 두딸 뚜벅이들의 걸음에 여유가 있다.

KTX기차에 탄지 두시간 정도되니 바다가 보인다. 우와~~~ 기차에서 이렇게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다니 너무 좋아 눈물 난다. 정동진 역에 내려 "뚜벅이들의 여행 화이팅" 구호를 외치고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다.

"안녕, 정동진"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여전히 친절하고 반갑게 맞아 주셨고 가자마자 사과와 멜론을 햐얀 접시에 담아 내오셨다. 2박 3일 여행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니 정동진에서 20분정도 기차 타고 가면 보물같은 묵호 여행지가 있다고 소개해주시다. 역근처에서 도깨비골 해랑전망대, 도깨비골 스카이밸리, 논골담길, 묵호항, 묵호등대가 있어 뚜벅이들이 여행하기 좋다고 안내 해주신다. 우와~~ 묵호 가보자~~~!!! 두번째날은 강릉 여행일정을 축소하고 묵호 일정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정동진에 도착했으니 큰애가 그토록 노래부르던 바다로 갔다.

초등 6학년 큰 딸이 바다에서 실컷 놀다 추운지 이제는 따뜻한 금진 온천으로 가자고 한다.

"안녕 정동진" 사장님 찬스를 써 차량을 이용해 금진 온천까지 편안히 갔다. 금진온천은 미네랄 온천수가 나온다. 냉탕 온탕 열탕 바데탕 네가지 물에 왔다갔다 하며 놀았다. 온천 실내에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큰 화면이 있어 열탕 안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한국 대 북한 여자 축구도 봤다. 온천욕을 신나게 즐기고 나오니 피부가 부들부들하다. 금진 온천 로비에 비치된 안마의자에서 시월

하게 안마까지 받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려고 하니 정동진 역까지 가는 셔틀 버스가 끊겼다고 한다.

맙소사~~!! 셔틀버스를 믿고 있었는데!! 카카오택시를 콜하니 계속 거절 메시지가 나온다. 기댈 곳은 "안녕 정동진" 사장님뿐!!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고 초조히 기다리니 픽업해주러 오신단다.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지난 번 정동진 여행에서도 느꼈지만 정동진 내에서는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 버스는 더더욱 배차간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유 자전거라도 보이면 이용하면 좋으련만 눈씻고 봐도 자전거도 보이지 않는다.

국내 여행 뚜벅이들과 우리 나라를 배낭여행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나라에서라도 공유자전거 구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설프지만 뚜벅뚜벅 이렇게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밤이 깊고 여행 첫날이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아직 밖이 캄캄하다.

정동진 해변가에서 책을 읽을 생각으로 창문 밖이 밝아지기를 기다렸다 책을 들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섰다.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 했다. 지난 여름 네이버 앱을 켜고 정동진 해변을 찾던 때와는 달리 동네 주민인듯 익숙하게 발걸음을 해변으로 향했다.

정동진 해변에는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해돋이를 보러온 사람들이었다. 날은 밝아졌으나 구름에 가려진 해의 얼굴을 보고 가려고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책을 펼칠 장소를 찾다가 벤치에 앉았다. 책을 읽자니 너무 추워 글이 머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산책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무렵 탄성 소리가 들린다. 구름 속에서 태양이 살짝 얼굴을 내보이는데 신비하고 아름다웠다.

정동진 해변의 나무 데크를 쭉 따라 600m를 걸으면 정동진시간박물관과 모래시계공원이 나온다. 지난 여름에는 이 가까운 걸 모르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었는데 두 번째 오니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동진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 혼자 보기 아까워 다시 '안녕, 정동진'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아이들한테 엄마랑 산책가자고 제안했다. 큰애는 더 자고 싶어했고 둘째는 따라나섰다.

5학년 둘째 딸과 산책도 하고 모래 해변에 앉아 파도치는 바다를 보며 편의점에서 산 꿀물과 유자차를 마셨다.

새벽에 해돋이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에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며 또 우리가 카페를 열면 어떻겠냐는 대화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고 기차로 보물여행지 묵호로 이동했다.

기차에 내리자마자 씨티투어 버스가 눈에 띈다. 시티투어가 정차하는 곳에는 안녕 정동진 사장님이 추천해준 여행지가 안 보인다. "그냥 가자~~ "

묵호 첫번째 여행지인 도깨비골 해랑 전망대를 목표로 걸어 가다 예쁜 소품가게에서 구경도 하고 어깨에 맨 가방이 무거워 카페에 들러 청포도에이드도 먹어가며 걸었다. 중간에 공용 화장실도 들렀는데 이때 일이 생겼다.

초등 6학년 큰 딸아이가 변기에 핸드폰을 빠트린거다. 오마이갓~~

큰 아이가 소리치자 옆에서 불일을 보던 둘째가 갑자기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온다. 우리 셋은 변기 물에 빠진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어찌지 ππ 울상을 짓고 있는데 둘째가 팔을 걷어 변기에 빠진 핸드폰의 그립 톱을 잡고 꺼낸다.

이때만큼은 우리 둘째가 영웅처럼 보였다. "우왕~~ 멋져!!" 신기하게도 물에 빠졌던 핸드폰 화면은 잘 나오고 작동도 잘되었다. 핸드폰을 구해준 은인이라며

매번 티격태격하는 큰애와 둘째 사이가 갑자기 살가워졌다.

묵호역과 도재비골 해랑전망대까지의 거리는 1.7Km이다. 25분이면 걷는 길을 1시간 반을 넘게 소요해가며 도재비골 해랑전망대에 도착했다. 초등 6학년 큰 딸은 고소공포증이 있다. 짙라인도 좋아하고, 클라이밍은 높은 곳까지 완주하고 오는 녀석이 높은 곳만 가면 무서워한다. 도재비해랑전망대까지는 잘 보고 왔는데 거기서 보이는 저 높은 도재비골스카이벨리는 도저히 못가겠다고 한다. 그곳까지 올라가야 묵호등대도 보고 논골담길 예쁜 벽화도 볼 수 있는데 안타깝다.

애들 아빠가 같이 있었다면 무조건 올라갔을텐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점심 먹고 택시로 묵호역으로 이동했다.

택시를 타니 4분만에 묵호역에 도착했다. 씨티투어버스를 타고 전체적으로 묵호를 돌고 오는게 나았을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 다음에 또 오면 돼지~! 하는 마음으로 툭 털어버렸다.

묵호역에서 강릉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니 출발시간까지 1시간 20분을 기다려야한다. 마침 묵호역에서 가까운 곳에 연필 뮤지엄이 있다. 연필 뮤지엄 로비에 배낭을 맡기고 편안히 관람했다. 다양한 연필들을 전시되어있었다. 연필을 사용한 작가들이 연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들의 연필을 전시해놓은 코너도 있었다. 연필에 대해 다각도로 전시해 놓은 것이 신선했다.

둘째는 포토존이 많으며 혼자 사진 찍기 시작했고 큰 애는 엽서를 한곳에 전시해 놓은 것이 너무 맘에 들었는지 그렇게 아끼는 자비를 털어 엽서를 샀다. 여행지마다 엽서를 모아 침대 옆 벽에 다 붙여 놓을꺼라는 계획을 이야기한다.

사실 이런 여행을 통해 얻고 싶은게 있다. 아이들이 무얼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일이다. 이번 여행에서는 딱히 찾은 것은 없지만 큰 애는 네이버앱만 켜면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주는 모습, 둘째는 변기 속에 빠진 핸드폰을 구출하는 용감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과 묵호 여행지를 걸어다니니 길과 가게 간판,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걷는 속도 만큼 머리에 들어가기에 길이 기억도 잘 되었다. 간판 이름 중 재미있는게 나오면 서로 이야기 하며 이번 여행지에서 최고의 간판은 '춤추는 삼겹살'이었다며 깔깔깔 댄다. 걸으면서 하는 이야기들, 사건, 가방의 무게가 우리의 추억을 더 깊게 기억하게 해줬다.

이제 기차를 타면 강릉에 도착한다. 강릉은 어떤 곳일까?^^

*Life is all about
how we see things*





Saturday Fun Bike





< 목호 도깨비골 해랑 전망대 >

목호에서 출발하는 강릉행 기차를 타고 40분 쯤 가니 강릉에 도착했다. 소박한 정동진역, 목호역을 보다 강릉역에 도착하니 관광의 도시답게 규모가 컸다. 목호에서 무거운 배낭을 맨 채 이동한터라, 강릉에서는 택시를 타고 게스트하우스 숙소로 이동을 했다.

네이버에서 숙소 예약할 때 오후 5시 체크인으로 되어 있어 그곳에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강릉을 즐겨볼 생각이었다.

OO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사람이 없다. 안내문을 보니 7시부터 체크인이라고 적혀 있고 짐은 2층 사물함에 보관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좀 의아한 마음은 들었지만 2층 사물함에 배낭을 보관하고 내려오니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주인장에게 네이버로 예약할 때는 체크인이 5시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니, 내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고 체크인은 7시부터란다. 긴 머리카락에 작그마한 얼굴을 한 젊은 여자 사장님 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마치 성에 사는 마녀 같은 느낌이 든다. 나와 초등 5학년 6학년 두 딸을 보며 가족이냐고 물어본다. 내가 예약한 방은 5인이 사용하는 다인실로 안내하며 함께 방을 사용할 나머지 두명의 이름을 보여준다. 한명은 남자 이름 같고 한명은 여자 이름 같다.

아뿔사!! 그 동안 이용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가족끼리만 한방을 썼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들과 한 방을 써야하고 그것도 나머지 두명은 연인같다. 아~~머리가 아프다.

행복한 일만 경험하니 나의 축이 무뎠나보다. 숙소 예약 전에 세 명만 사용할 방이 있는지 미리 확인했어야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여자들만 묵는 방으로 해달라고 했어야 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 게스트하우스는 예약도 안 해야 맞는 거다. 그 동안 아무일도 없었고 선물처럼 좋은 기억만 있던 게스트하우스만 경험했더니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 확인 절차를 안 밟은게 문제였다.

나는 체크인이 안내대로 되지 않은 것을 트집 잡아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 평상시와는 달리 흥분한 어조로 주인과 이야기를 했다. 젊은 여자 주인은 차가운 눈빛과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말한다. 옆에서 초등 6학년 큰 딸은 하루 밤 잠만 자고 가면 되니깐 괜찮다며 의외로 담담했다. 더 이상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과 함께 이른 저녁밥을 먹으며 오늘 밤을 걱정하고 있는데 밥집 사장님이 친절하게 서비스로 음료수를 준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며 마음이 풀렸다. 배가 든든해지니 오늘 밤일은 또 먼 일같이 느껴져 배낭이 없는 가벼운 몸으로 월화거리를 걸었다. 사진도 찍고 카

페에도 들르고 중앙시장도 가보며 강릉을 느꼈다. 최대한 늦게 게스트하우스에 가고 싶었는데 5학년 둘째가 7시 넘었으니 빨리 게스트하우스 가서 체크인을 하자고 보챈다.

OO게스트하우스 앞까지 왔는데 갑자기 큰애가 내일 아침 기차타러 가야하니 게스트하우스에서 강릉역까지 미리 걸어보라고 제안을 하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불친절해 가기 싫다며 게스트하우스에 늦게 들어가자고 한다.

아까는 그리 담담했던 녀석이었는데 뭐지?

"그럼 아까 너도 기분이 나빴던거야?, 담담하게 하루밤만 자면 된다고 엄마한테 말했자너?"

사실 큰 아이도 5인 다인실에서 성이 다른 남자랑 한방에 있는게 부담스러웠던 거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불친절한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근데 엄마가 평소와는 달리 흥분한 모습을 보이니 본인의 감정을 숨기고 엄마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담담하게 행동했던거다.

부모 그늘 아래 안정감을 느끼고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펼치게 하자는데 나의 평소 철학이었는데 숙소를 예약하고 확인 안한 엄마를 탓하지 않고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려고 자신의 마음 감춘 큰 딸의 행동을 보니 아차 싶었다.

느즈막히 들어간 OO게스트하우스에서는 노래가 나오고 어두컴컴하다. 게스트하우스 1층은 저녁에는 바로 운영된다고 한다. 초등아이 둘을 델꼬 온 엄마는 이것도 맘에 안든다. 2층에 있는 방에 올라가 얼굴만 대충 씻고 내일 출발 할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함께 방을 사용할 타인들과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아이들도 침대 앞에는 블라인드가 내리고 빨리 자라고 했다. 알고 보니 우리 가족 셋을 제외하고 두 분 다 따로 온 남자분이였다.

나는 한방에 자게 된 낯선 남자 둘에게서 나와 두 딸을 지키려고 밤새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이층 침대에서 잠을 자던 둘째가 화장실 가려고 내려오다 떨어지는 상상까지 각종 불안이 나를 괴롭히는 긴 밤이였다.

아침이 밝았다. 다행이 아무 일 없이 우리는 하루 밤을 보냈다.

아~~~ 당분간은 여행 생각은 안 날 듯하다. 여행은 우리 집이 최고라는 것을 알기 위한 떠남인가보다.

I love u...



for infinity!